

'96 웰치화학상에 나카니시교수

컬럼비아대 석좌교수 ... 아프리카 말벌독액 연구



▲ 나카니시 코지

1996년도 로버트 A. 웰치화학상(상금 30만달러)은 세계를 여행하면서 자연 속의 활성적인 생물화합물을 단리한 미국 컬럼비아대학 화학과 교수인 나카니시 코지가 받았다. 휴스턴 소재 웰치재단이 해마다 화학을 통해 인류에 공헌한 과학자에게 수여하는 이 상은

금메달과 증서가 포함된다. 나카니시가 연구한 화합물 중에는 실용화된 것이 많다. 예컨대 그가 합성한 아프리카 말벌의 독액은 과학자들이 산소결핍으로 뇌세포가 손상되는 것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어 뇌졸중, 심장병, 간질과 같은 신경질환, 알츠하이머병, 헌팅턴병, 파킨슨병 등의 치료에 진보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올해 70세의 나카니시교수는 일본에서 여러 해동안 가르친 뒤 1969년 컬럼비아대학으로 옮겨 1980년에 석좌교수가 되었다.

타일러 환경업적상 공동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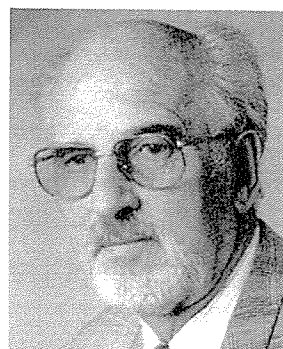
코펜하겐대 단스가르드교수 등 3명

1996년도 타일러환경업적상이 5월초 3명의 기상학자들에게 수여되었다. 덴마크 코펜하겐대학의 명예 지구물리학교수인 윌리 단스가르드, 그레노블 소재의 프랑스 극지연구기

술연구소 이사장인 크로드 로리우스 그리고 스위스의 베른대학 명예 물리학교수인 한스 오에슈거는 고대의 극빙핵(極氷核)의 지구 기후변화를 기록한 업적이 인정되었다. 이들은 로스



▲ 크로드 로리우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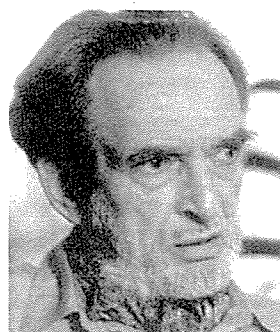


▲ 한스 오에슈거

엔젤리스에서 가진 수상식에서 15만달러의 상금을 함께 받은 외에도 각각 금메달을 받았다. 올해 73세의 단스가르드는 15만년전의 지구변화를 기록하기 위해 산소 및 수소추적동

위원소를 사용했다. 63세의 로리우스와 68세의 오에슈거는 지구온도의 변화를 추적하기 위해 빙핵 속에 갇힌 이산화탄소와 메탄과 같은 대기가스를 이용하는 방법을 개척했다.

서던 캘리포니아대학이 관리하는 타일러상은 환경과학과 보호에서 이룩한 뚜렷한 업적을 인정하기 위해 고(故) 존 타일러 및 알리스 타일러가 제정했다. 존 타일러는 또 로스엔젤리스 소재 파머즈보험그룹의 창업자이기도 하다.



▲ 윌리 단스가르드

루이스 토마스상에 다이슨교수 영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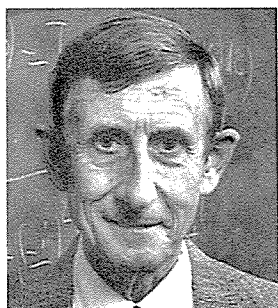
美 록펠러대 주관, 자서전 「우주의 교란」 출판

뉴욕 소재 록펠러대학은 해마다 예술적인 업적을 올린 과학자에게 루이스 토마스상을 수여한다. 1996년

의 영예는 뉴욕타임스와 사이언티픽 아메리칸지에서 논픽션 기사를 출판한 프린스턴 소재 고등연구소의 물

리학 명예교수 프리만 다이슨(72)에게 돌아갔다. 1981년 월프상 수상자이며 미국 과학아카데미 회원인 다이슨은 1979년 자서전인 「우주의 교란」(하퍼 앤드 로우사)을 포함하여 6~7권의 책을 출판했다.

그는 과학과 문학업적으로 이 상을 받았으며 1984년의 논픽션 「무기와 희망」(하퍼 앤드 로우사)으로 미국서적비판상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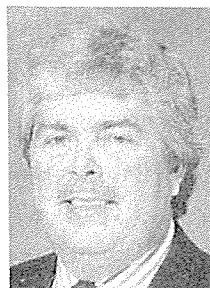


▲ 프리만 J. 다이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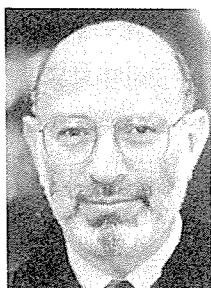
43년간 고등연구소에서 일하고 있는 다이슨은 1996년 5월 22일 록펠러대학의 시상식 후 토론회를 가졌다.

레멜슨 MIT賞에 과학자 2명 수상

재결합 DNA연구한 코헨과 보이어



▲ 보이어



▲ 코헨

재결합 DNA연구의 기본 '연장'을 개발한 스탠리 코헨과 허버트 보이어가 1996년 4월 11일 상금 50만 달러의 레멜슨-MIT상을 받았다. 1994년 발명가 제롬 레멜슨이 설립하고 MIT가 관리하는 이 상은

에 삽입할 수 있는 '페이스 메이커'(맥박조정기)의 발명가인 뉴욕주 클레어런스시의 윌슨 그레이트베치에 대해 상금이 없는 '평생업적상'을 수여했다.

DNA절단용 제한효소에 관한 전문가인 캘리포니아

“현대의 뛰어난 미국 발명가와 기술혁신을 한 사람”에게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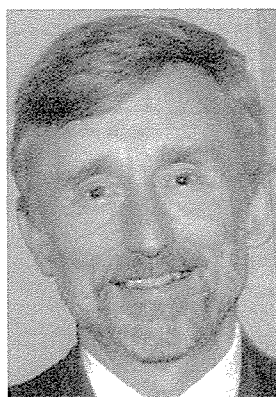
1996년도에는 또 체내

대학(샌프란시스코) 생물학자 보이어는 1972년 스탠퍼드대 의대교수인 코헨과 함께 제한효소연구를 하기 시작했다. 1976년 보

이어는 현재 20억 달러의 가치를 지닌 생물공학기업 제넨테크사를 공동 창업했으나 코헨은 생물공학 범에 뛰어들지 않았다.

美 소크생물연구소장에 폴라드 취임

존스홉킨스대 세포생물학·해부학과장 역임



▲ 소크연구소 신임소장인 토마스 폴라드

장인 노벨상 수상자 프란시스 크릭이 심장상태가 좋지 않아 소장직을 사임한 1995년 9월부터 후임자 물색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폴라드의 이전이 완료되자면 아직도 6~7개월은 더 걸릴 것이다. 존스홉킨스의대의 그의 연구실의 12명의 연구원중 6명은 소크연구소로 옮기기 때문이다. 폴라드는 분자의 모터를 형성하는 단백질 약틴과 미오신에 관한 연구에서 널리 알려져 있다. 그의 전문분야는 세포생물학과 생물물리학인데 소크연구소는 이 두 분야를 확장할 계획이다. 그런데 현재 이 연구소의 주요연구대상은 신경과학과 분자유전학이다. 올해 53세인 폴라드는 1968년 하버드대학 의대에서 MD학위를 받았다. ⑤7

쇼아마비를 예방하는 소크백신으로 널리 알려진 미국 캘리포니아주 소재의 소크생물연구소는 거의 1년간에 걸친 소장선정 작업 끝에 마침내 신임소장을 임명했다.

전 존스홉킨스의대의 세포생물학 및 해부학과장인 토마스 딘 폴라드(Thomas Dean Pollard)는 1996년 7월 1일 이 연구소의 제9대 소장으로 취임했다. 전 소